

제 206 호

연중 제31주일

1976. 10. 31.

숲 정 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범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⑤5098)

● 강론 ●

계명의 등급

이 상 호 신부



예수님과 율법학자와의 대화는 이렇다.

율법학자 : 모든 계명중에 어느것이 첫째가는 계명입니까?

예수님 : 첫째,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없고 모든 율법과 예언서가 이 두 계명으로 요약되느니라.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율법학자 :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예수님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다.)

오늘을 신앙의 위기시대라고 한다. 기계와 기술의 발달은 풍요한 사회를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살기 편리하고 삶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 놓았다. 그런데 이런 생활에는 물질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필요한 재물을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으며 그러다보니 결국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어느새 물질적인 인간이 되고 만다. 이렇게 살다보니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이 약해지는데 대하여 놀라게 된다. 이런 현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예수님시대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 있을 것이다. 로마의 지배를 받던 예수님 시대에도 빈부의 차이는 있었고 부자는 부자대로 재물에 놀과 마음을 빼앗기고 억압받는 사람은 생활에 허덕이고 재판이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율법주의 형식주의 권위주의에 빠져 하나님의 정진과 먼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 위와같은 대화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때에 예수님께서서는 근본적이고 올바른 신앙정신을 일깨워 주셨던 것인데 이것이 바로 사랑의 계명이다. 우리는 흔히 신앙과 사랑을 이론적으로는 잘 따지고 말하지만 실천하지 못한다. 그런데 사랑은 바로 행동이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은 절대적이지만 이웃 사랑은 자유라고 생각하는 이가 많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두 계명과 사랑에 등급을 매겨 차별을 두지 않고 하나요, 똑같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신다. 계명이란 자유로이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하는 마치 십계명과 같다.

그래서 이웃 사랑은 꼭 해야 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을 완성하고 증명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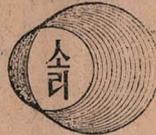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셔서 먼저 죄인과 가난하고 억압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상대하셨다. 그래서 이런 이들에게 봉사하시고 당신 생명까지 바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였고 너의 보화가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고 하셨다. 우리는 너무도 이기적이고 형식적이고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주일만 지키는 신자-이웃에 무관심한 신자가 되지 말라. 이웃에 성내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원수를 용서하며 이웃을 도와주자. 그리고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 두자. 진복판단의 정신을 받들어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때 주님 사랑도 실천되고 우리에게는 평화와 행복이 올 것이다. 우리가 율법학자나 바리사이파 사람이거나 이교인보다 더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주님사랑, 이웃사랑” 똑같이 실천하자.

〈신대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시대의 징표□



텃 세

구두담이들에게 “자릿세”라는 것이 있어서 한때 사회 문제로 시끄러운 적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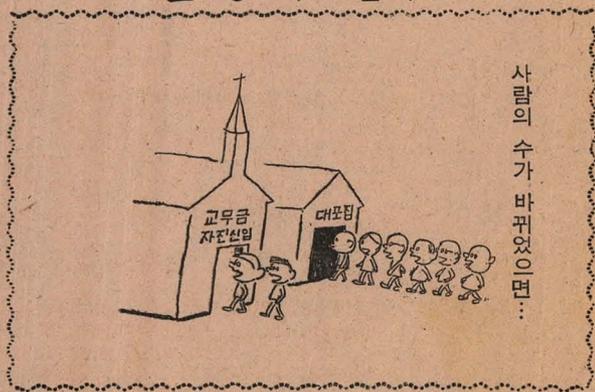
옛그제 학생들과 함께 S사→B사→N사를 들리는 여행을 한 적이 있었다. 때가 때인지라 단풍을 보러온 사람들로 한창 붐비고 있었다. 마침 학생들의 여행인지라 앨범을 위한 사진이 빠질 수는 없었다. 사진찍는 일때문에 한참 시끄러웠다. 학생들과 함께 간 사진사가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돈을 당지의 관광 사진협회에 내야 한다는 것이다. 문득 “텃세”라는 말이 떠올랐다.

—먼저 자리잡은 사람이 뒤에 오는 사람을 업신 여김. 새로 전학을 가던지, 이사를 가서 흔히 당하는 일이다. 지정된 좌석이 없는 극장엔 가거나 버스에 타도 마찬가지이다. 신문지나 손수건을 올려놓고 사람이 있다. 어떤 때는 버스가 떠나도 자리가 비는 일조차 있다.

관광지에서든 샷사 요급이라고도 한다는데, 이것 한번 생각해보는 일이다. 물론 당국에서 정식으로 인정해준 일은 아니리라고 믿는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업자들끼리의 묵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한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렇게 좋게만 보아줄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한다. 관광지, 더구나 사찰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렇지 않아도 관광지에 가면 <못보아줄 일>들이 많다. 술이 취해 울부짖는 부녀자, 치마끈이 흘러내리는 부녀자, 어찌나 장발인지 여자처럼 보이는 젊은 남자의 기성(奇聲)과 몸짓, 바가지 요금 등 손을 꼽아볼래야 볼래하기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

어쨌든 “텃세”풍토는 없어져야 한다.
「맨끝이 첫째가 되고 첫째가 맨끝이 될 것입니다.」
(마태오 20, 16)이 말씀이 지닌 의미는 무엇일까?

숲 정 이 산책



사람의 수가 바뀌었으면...

교구 평협 (天主教 全州教區 平信徒 使徒職 協議會)

새해의 다짐과 지난해의 결산

뜻깊은 전교주일에 교구 평협의 1년 결산과 새해를 다짐하는 제1차 정기총회가 있었다. 31개 본당 가운데 24개 본당 사도회 대표와 8개 단체 가운데 5개 단체 대표가 참가한 총회였다. 불참한 본당은 부안·고산·여산·중앙·진안·순창·임실이었고, 불참한 단체는 교리교사회·학생회·M.B.W였다.

지난 해의 두드러진 활동으로는 본당 순회교육 (31개 본당 중 26개 본당 실시), 전주지방의 순교성지 소개 유인물 작성 배포, 사상 대강연회, “크리스찬 생활” 연수회 실시 등이다. 특히 교구단위의 액션단체 등에 대한 확인지도는 큰 성과라고 보겠다.

그러나 931,676원의 예산 집행의 수입원 가운데 68% (637,770원) 교구보조에 의존하고 있는 점은 두고 두고 해결해야 할 문제점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한다.그런 가운데서도 교육비에 46% (432,870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은 신자 재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과감하게 실천에 옮긴 것이라고 보여진다.

새해의 사업계획도 대개는 지난 해의 것들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이지만, 두드러진 것은 교구 평협의 계획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실시해오던 종전의 방법을 바꾸어 이제는 본당에서 요청이 있을 때만 교육지원을 하겠다. 이를 잘 분석해 보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본당은 크게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가톨릭 간행물을 지역사회의 공공기관에 보내주는 운동도 꽤 바람직한 시도인 것 같다. 그러나 이에 앞서 교우 각 가정의 성서나 정기 간행물 보급 현황에 대한 실태파악이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현황파악에 의하여 교우들에게 먼저 성서와 정기 간행물을 보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구 평협에서는 각 본당이 가정방문시에 이

를 조사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더욱 의미있는 일은 가톨릭 약사와 의사의 실태를 파악하여 가톨릭 의사회와 약사회를 결성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특별한 연결과 사회봉사를 기대하고 있는 계획이다.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다. 아울러 성가 개창운동 이후 본당 성가대의 침체가 많은 오늘, 젊은 평신도들의 움직임에 기대해 보는 젊은 성가대의 육성 계획도 꽤 뜻있는 일이라고 보겠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계획은 교구내 모든 평신도들이 일치된 모습으로 보여주는 협조와 경제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매년 평신도 주일의 현금은 온전히 평신도 운동과 활동을 위해서 쓰여진다.

이날 거두어진 현금의 3분의1은 본당에서, 3분의1은 교구평협이, 3분의1은 전국평협이 그들 교구의 활동과 운동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되어 있다. (주교회의 의결사항) 지난 해의 평신도 주일 현금가운데 147,906원을 교구평협이 수령했다고 결산보고에 나와있다. 적어도 금년 평신도 주일 (11월14일) 에는 그 두배의 성과가 기대된다.

이날 총회에서는 부회장에 유석중 (스테파노, 殿洞), 상임위원에 박종용 (레이지오, 老松洞) 회장을 보선하고, 보다 활발한 홍보활동을 촉구했다.

병환 중인 지도신부(범석규)께서 불편한 가운데도 미사를 집전하여 총회에 참석한 분들을 감격케 했고, 총재 주교(김재덕)께서는 “주교인 나는 여러분들만 믿습니다”라고 호소하여 총회에 참석한 평신도 대표들에게 무언가 말없는 가운데 협력과 일치로 다짐하게 했다.

* 반짝 반짝 *

여류 시인 김 남조(金南祚, 막달라 마리아, 숙명 여대 교수) 여사가

전주 해성 중교 교구 교구부에 양서(良書)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일금 30,000원을 희사하였다.

★ 교우 여러분의 뜻을 책임지겠습니다 ★

전 일 양 복 점

(舊 댄디 양복점)

전 태 권 (스테파노)

□오거리←→삼남극장중간 (교사동 1가 175번지)

전화 ② 9 4 6 5

◎새롭고 저렴한 연탄 보일러 안내◎

한국(流)온수 온돌 공사

(본사지역 호남 출장소)

이리시 인화동 2가65-16 (전화4940)

한 동 압(모이세)

노송동 ③4874	부안 736	남원 90	장수
다가동 ②4342	정읍 2157	임실 261	고창
진동 ②2143	김제 45	무주	
군산 3032	삼례 350	진안	

☆ 각 지방 지점 구함 (계약금 없음)

□양 지 쪽□



교 무 금

박 진 흥

「존경하는 신자 여러분!
여러분께서 약속하신 교무금을 바쳐 주십시오」
이만때에는 어느 본당이나 자주 교회 재정을 맡은 분이나 사도회장들이 신자들에게 하소연하는 한마디 구절이다.

주님의 자녀들이라고 자처하는 우리 천주교회 신자 여러분!

왜 우리는 거룩한 성전에서 신부님이나 지도자들로 하여금 돈에 대한 말을 하게 하며 들어야만 되겠는가?

예전에는 교무금을 신자 각 세대에 얼마씩 내줄 것을 요청하여 성찬절안에 납부하도록 교육을 했으며, 주님대전에 자기 수입의 십분의 일을 바치는 것으로 배웠고 잘 실천해 왔었다. 그러나 지금은 신자들의 권위를 높여 자진 신입과 자진 납부 방법을 어느 본당이나 실시하는 줄로 알고 있다.

사랑하고 흠송하는 하느님이라 부르며 그분의 자녀라고 칭하는 우리가 인간과 인간의 약속도 아니며 창조주 하느님과 약속을 왜 지키지 않으며 구두쇠와 같이 인색하게 지내는가?

우리가 어느 국가원수와 무슨 금전관계의 약속을 했다고 생각해 보자.

전담을 맡아서라도 약속기일 안에 책임을 완수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모든 만물에 창조주이며 주인이신 그분과의 약속을 어느정도 지켰는가를 생각해 보고 싶다.

지난해 교무금 60%가 납부되었다면 주님 사업도 60%밖에 못했다는 얘기가 된다. 자동차가 아무리 최신식이라고 하더라도 기름이 없는 차는 무용지물이다. 교회에 유능하고 훌륭한 신부님이나 지도자가 있더라도 신자 개인 개인의 협조와 뒷받침이 없으면 어찌 한 두사람의 힘으로 교회가 빛을 볼 수 있겠는가.

신부님, 수녀님, 사도회나 지도자들이 금전에 구애받지 않고 주님의 사업에만 치중할 수 있도록 모든 신자 자신의 현명한 자성을 바라고 싶다.

77년 한해만이라도 전주교구 신자들이 교무금 100% 납부와 본당은 교구비 완납의 해로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며, 복자들의 열을 새기며 순교의 정신으로 우리 신자들이 단합하면 이룩되리라 믿는다.

<김제 천주교회 재경분과위원장>

요심이 (170) 김병인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임금님 찾 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② 5 0 1 3
김 원 준(야고버)

삼품화학 하이퐁, 하이원 고농도 중성세제의 용도

1. 살균 소독.....야채, 과일, 생선, 식기, 냉장고, 조리기구등
2. 표백 살균.....행주, 걸레, 기저귀, 흰옷이샤스, 내의, 훌이불
3. 세척.....옷에 묻은 잉크, 과즙, 피, 술등의 얼룩, 세차, 기계공업등

□연락처 : 전동성당 옆 골목(2-7249)

□개원안내□

★ 언제나 찾아 주세요 ★

수석(水石)치과의원

전주시 중앙동 3가 42~1
<박 소아과> 앞

원장 김 현(아오스명)
전화 ② 1665

정신병으로 고통받는
가정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성일 정신 요양원

원장 김 창 호(클레멘스)

□ 남원군 남원읍 향교리 520번지
전화 4 1 3 4
(남원 천주교회로 연락해도 됩니다)

각종 생과자 식빵 및 케익

미미제과소

전화 ② 6 5 8 9
전주시 경원동 1가 104~26
<상업 은행 옆>

김민주<가타리나>

□알려 드립니다.

- ★ 한국온수 보일러와
 - ★ 금화식 보일러가 있습니다.
- 책임지고
교형 여러분의 집을 따뜻하게
해드립니다.
전주시 전동 3가 매곡교 사거리
전화 2-2143
주원배 <실베를>

신자들의 건강 센터

성심당한약방

이 상 범(필노리아노)
육교 밑 구 북부배차장 옆
전화 ③ 4 5 4 4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 공지 사항 ※

- 11월은 위령 성월(慰靈 聖月), 먼저 가신 조상들과 가족들을 위해 미사 봉헌하고 기도합니다.
- 11월 2일(화)은 위령의 날
 - 혼인 문제 상담일(11월 3일<수>, 교구청 응접실에서 상담함)
복잡한 혼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상담과 교회법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고통당하는 이웃의 형제 자매들에게 널리 알리고 권유합니다.
 - J.O.C 16차 정기총회(11월 7일 오전 9시 가톨릭 센터, 회비-100원)※ 선배 투사님들의 많은 참석바람.

(중앙)

전화 ③3651 주 임 신부 이 대 권
③3874 사 보 화 신부 이 종 원
사 도 회장 이 상 용

- 방지거 삼회 : 다음주 오후 2시30분
- 미사시간 변경 : 주일과 평일(오후 7시30분→7시로)
- 성심 부녀회 : 11월초로 연기
- 가정 방문 : 서노 1구, 2구(11월 1일~5일 까지), 진북 1동, 인후동(11월 8일~12일), 중노총동, 금암동(11월 15일~19일), 경원동, 고사동(11월 22일~26일) 배령동 1구, 2구, 2가(11월 29일~12월 3일), 진북 2동, 서진동(12월 6일~10일)

※ 가정 방문중에 고백 성사표를 배부합니다.

- 사도회 임시 총회 : 공식미사 후 ②구역장, 반장님의 참석바람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공 아 영
사도 회장 박 종 용

- 모든 성인의 날(11월 1일) 분당행사 : 오전 6시 30분 미사, 오후 2시 미사중-재속 형제회 종신 서약식이 있음
- 11월 1일 위령의날 합동 위령미사 봉헌 : 미사시간-오전 10시, 오후 7시. ② 각 가정은 선영을 위하여 분당 사무실에 봉헌 봉투가 있으니 빠짐없이 봉헌하십시오.
- 중노 1가 반상회 일정 : 개나리반(김마리아)-11월 1일, 백일홍반(노아가다)-2일, 모란반(백안나)-3일 난초반(최아가다)-5일

※ 해당 반원은 빠짐없이 참석합니다.

- 성시간(첫 목요일) : 11월 4일,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 공식 미사후
② 사도회 임원, 본당 각 단체의 대표, 각 구역장님은 빠짐없이 참석 하십시오.

(덕진)

전화 ②2182 주임 신부 박 종 근
사도 회장 김 용 환

- 「봉헌금(교무금)을 10월말까지 사도회에 신임 바람
※ 말일까지 미 신임자는 사도회 임원이 가정방문하여 신임을 받음. (집일조의 봉헌정신으로 양심껏 하세요 : 작년도 교무금의 35% 이상) 각 구역장, 반장 공소회장님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76년(작년분) 교무금을 속히 완납 바랍니다.
- 성당 신축 성금 : 미신입하신 분은 사도회에서 가정 방문하여 신임 받게됩니다.
□ 지난 주 신임 : 강배근, 최순금, 한기성(각2만원), 송글라라(1만원) 계 70,000원 누계 4,531,500원
- 신용조합 임원회 : 5일 오후 8시(본당 회의실)
- 신축 위원회 : 오늘 공식 미사후

- 사도회 확대회의 : 다음주(7일) 공식 미사후
② 사도회 임원, 고문, 공소회장, 구역회장, 반장님은 전원 참석 바람.
- 파티마의 성모 영화 상영 11월 10일(수) 오후 7시. 회비 100원.
※ 한번 보시지 않겠어요? 이번 기회에 잊지 마시고 꼭 관람하세요.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 종 길
사도 회장 조 성 호

- 11월은 위령 성월! 11월 2일-위령의 날 합동미사
- 「성경 연구」 실시 :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각 신심단체 회원 및 뜻있는 교우>
- 봉헌금(교무금) 신임 : 교우회 회합을 통하여...
- 교우회 회합 : 11월 1일(1, 2반)-박 요셉씨택, 2일(3, 4반)-김 바울라씨택 4일(5반)-정 수산나씨택, 5일(5, 6반)-김 글라라씨택
※ 환등기로 새로운 교리를 흥미있게!
- 「파티마의 기적」영화 상영 : 11월 8일~9일(저녁 8시) 장소-복자성당
- 개창 성가 연습 : 매 주일 공식 미사중 10분
- 사도회 상임위원회 : 11월 7일 오후 7시30분
- 부녀부 정기총회 및 피정 : 11월 19일 오전 9시~ 오후 4시.
② 대상-부녀부 회원 전원과 모든 신심단체 회원, 그의 신자 전원 참석 바람. <중식 제공>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 현택
사도 회장 박 장준

- ★축! 건진...
- 11월은 위령의 달이며 2일은 위령의 날입니다.
선조들과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합동미사와 뜨거운 기도 부탁드립니다.
- 다음주(11월 7일) 사도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김 환철
보좌 신부 김 병환
사도 회장 김 유석

- 11월은 위령 성월 : 죽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서 P. 26>
- 남고산 산상 야외미사 : 오늘 12시
- 모든 성인의 날(합동 본명 축일)-월요일, 위령의 날<아침, 저녁 미사 2대씩 봉헌>-화요일
- 글라라 형제회 : 산상 미사후
☆ 우리 가정은 가족과 함께 기도 열심히 바치는지요?.....
☆ 교무금 신임은 언제 하시렵니까?.....